

불자 세상보기



박경배  
상지대 경영학과 교수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도 한때는 낡은 산업을 대체하며 나타난 신산업이었다. 원래 이 땅의 유통업은 5일장과 장을 돌아다니는 붓집정수가 전부였다. 소득이 늘면서 상설시장이 커졌고 그곳의 상인들이 결국 5일장과 장돌뱅이 붓집정수들을 대체했다. 1960년대부터는 점방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재래시장의 몫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구멍가게들이 지금과 같은 동네슈퍼로 변한 것이다.

유통업이 다시 진화하며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이 심화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단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다. 즉,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 자신이 결정한다. 아궁이 불에 의존하던 난방방식이 연탄난방을 거쳐 보일러나 지역난방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연탄공장과 탄광들이 문을 닫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 보호

에만 열중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연탄만 태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재래시장이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재래시장의 문제를 단순히 상업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대형 유통점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재래시장을 결코 활성화시킬 수 없다. 4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제히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법 시행 첫날 재래시장, 그러나 소매상을 살리자는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인근 재래시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휴점일 하루 전인 토요일에 신선식품 등이 각종 프로모션을 펼치며 전주 대비 매출이 크게 뛰는 기 현상까지 벌어졌다.

또 대형마트 및 SSM이 휴점한다고만 했지 어디인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문 닫은 대형마트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김스클럽 등 전국 14개 대형마트 365개점 중 3분의 1인 115개 점포가 문 닫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역시 영업하지 않았다. 서울은 12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 아울러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빅4 SSM 전국 1066개 점포 중 3분의 1인 345개 점포가 휴무를 단행했으며, 서울에서는 84개 SSM이 휴점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일요일 휴점을 앞두고 하루전일인 토요일

대형마트 휴무 효율성 떨어져  
재래시장에 복지시설 등 유치 필요  
시장의 다양한 인종제 대안 대두

일, 신선식품 등이 행사 및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주 토요일 대비 40% 가까이 뛰었다는 것이다. 지방권역도 이마트의 경우 분당점, 문현점, 광주점 모두 20~30% 가까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대형마트를 강제적으로 휴무에 들어가게 했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썰렁했으며,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손님이 없는 텅빈 매대를 지켜보아야 했다. 소비자들은 장 보는 것을 하루 미루더라도 대형마트를 찾

으려고 했지 재래시장은 찾지 않았던 것이다. 재래시장을 고객이 교류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나도록 하고 아이들과 주부들을 위한 식문화와 전파하는 평생학습시설이 함께 해야 한다. 단지, 재래시장 근처의 길가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현대식 주차시설을 갖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재래시장이 아직 대형마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강점인 야채류 등 신선 식품 관련 경쟁력이 좀 더 보완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야채류 등 신선 식품의 경우 현재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에도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인증제가 필요하며 이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법 규정만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대형마트도 재래시장도 서로 상생하며 잘 살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할때다.

社說

세계불교포럼, 외형보다 내실을

중국불교협회·홍콩불교연합회·중화중교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차 세계 불교포럼이 4월 26일부터 홍콩 홍콩체육관과 리갈공화호텔 일원에서 개막됐다. 전세계 40여개국 불교지도자와 학자, 전문가 1천여 명이 모여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아담법석이다. 이번 대회에 주최는 '화합의 세계로 같이 나아가길 발원한다'이다.

들리는 소리로는 지난대회 보다 10여 개국이 불참하고 참가인원도 대폭 줄어드는 등 세계 불교계의 관심이 다소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야 어쨌든 처음 개최때보다 다소 관심이 떨어진 듯 하다.

하지만 대회의 외형적 이벤트나 불거리 및 규모는 여전히 화려했다. 세계불교포럼 개최를 기념해 25일 홍콩체육관에서 개막한 '부처님 두정골 사리 이운 행사'는 생방송

으로 중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10여 스태프들과 진행 요원들은 황금빛 지게차를 이용해 화려하게 장엄된 트럭에서 두정골 사리를 행사장 특설무대로 이운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불자들이 합창한 채 두정골 사리의 이운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반겼다. 이어 26일 열린 한중일 불교계 대표(한국-영남 스님, 중국-웨칭·學成 스님, 일본-고바야시 류쇼 스님)들이 '황금유대에 관하여'란 주제로 열린 TV토론회 큰 관심을 끌었다.

무엇 종교 행사는 외형적 규모나 화려함 보다는 진정한 내실 다지기가 더 중요하다. 3차 대회까지 치르는 동안 세계불교포럼은 충분히 외형적으로는 큰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부터 차기 대회때부터는 불교가 세계일을 이루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내실 다지기에 힘을 쏟아야 명실공히 큰 행사로 거듭날 것이다.

새싹포교,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 운영사찰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파라미터청소년보호회와 포교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청소년보호 운영사찰은 304곳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월 조사 당시 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미등록 사찰이 포함하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부터 도입한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제도와 직할교구 사찰 인사고과제도 정착이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꾸준한 양적 증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정책이 일관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꾸준한 양적 증가에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가지고 있는 속재는 여전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확보다. 특히 주5일제 시행이 본격화 된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찰에 잠시 보낸다는 개념이 아닌 고정

적으로 맡긴다는 개념으로 변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영여법회인 달마스쿨, 명상 프로그램 등 일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법회를 여는 것이 주지스님에게 달려 있다면 아이들을 오게끔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역량"이라는 일선 실무자의 말은 뼈 아픈 지적이다.

새싹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대한 불사다. 사찰의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들이 어린이들의 스승이 돼 주고 함께 공부하고 지도할 때 어린이 포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종단 역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육군훈련소 법당 완공에 부쳐



장성님  
군종특별교구장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인 호국연무사가 드디어 낙성됐다. 호국연무사는 국내 최대 규모 법당으로, 한번에 3500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불교계는 문을 연 호국연무사에서 청년포교의 새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호국연무사는 계단식 의자배치, 자체 발전시설과 냉난방 및 먼지제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짧은 감각의 장엄물과 조영시설 등에 정성을 기울였다.

논산훈련소는 전곡서 모인 장병의 반수 이상이 군사교육을 받는 곳이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젊은 시기에 성찰의 시간이 되는 군 생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중 고된 훈련을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종교 활동은 그들에게 감수수 같

이 소중한 시간이다. 종교 활동 시간은 숙된 말로 배고픔을 잊고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종교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때론 상처도 받으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면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그 시점을 군대생활이라고 흔히 말한다. 처음 그들이 종교를 접하는 것은 단순한데서부터 비롯된다.

군 생활의 피곤함에 지쳐서 좀 더 많은 간식과 편안한 휴식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곳에 자주 문을 두드린다. 그 곳이 바로 종교 활동 행사장이다.

이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에서 청년 포교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포교의 황금어장인 셈이다. 반면 불교계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악하다. 하지만 이번 호국연무사 완공은 청년포교 현장에서 충분히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된다. 훈련소 내 최고 시설에 걸맞게 최고의 포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만 군복자 수계 목표를 달성하

고 이들이 사회에서 참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호국연무사 불사를 진행하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정부 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전국 사부대중의 모연을 통해 이뤄진 불사라는 점이다.

군불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지대  
정부 지원금 일체없이 불사 완성  
25억원 모연 과제, 동참 호소

그동안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심시일만 불사에 동참했다. 이 대작불사에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 낸 불자부터 군 생활 동안 월급을 모아 낸 불자들까지 다양한 불자들이 힘을 보탤다. 지면을 빌어 정말 머릿속이 감사드린다.

지난 2009년 11월 불사를 선포한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이 대작

불사에 범열을 느낀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전체 130여 억 불사금 중 25억 원이 더 모연돼야 한다. 건실사에서는 낙성 때까지 대금을 지급 못하면 법당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군종교구에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남은 불사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 대작불사 완성을 위해 사부대중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청년 불자 양성소다. 수계 받고, 법회에 참가한 인원으로 전역 후 이들은 전국 곳곳 사찰을 찾아 불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등을 호국연무사에 밝혀주길 바란다. 군종교구서는 삼존불 좌우로 모셔지는 1500만 원불 조성을 모연하고 있다.

동참 인연공덕으로 불법이 융성하고 우리의 많은 후손들이 불교와 큰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부대중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홈엔터테인먼트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엔터테인먼트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 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